

2020년 소식지

승실대 사회복지대학원

- 똑똑한 사회복지사되기_허준수 원장
- 코로나 팬데믹 시대_김경미 부원장
- 2020년을 돌아보며_이우식 원우회장(사회복지실천 4학기)
- 함께 했기에 갈 수 있었던 길_천경예 부회장(상담복지 4학기)
- 벌써 졸업이 다가왔습니다_박영선(사회복지실천 4학기)
- 화양연화_윤다정(사회복지실천 3학기)
- 관계_한승희(사회복지실천 2학기)
- 배움의 열정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한다는_조래연(사회복지 3학기)
- 어머니(박영미작)_박영미(사회복지 1학기)
- 2020 해외현장연수(미국&베트남) 사진&소감문
- 2020 강화도 졸업여행
- 번개모임
- 힐링캠프
- 원우회 행사 이모저모
-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 소개



CONTENTS

똑똑한 사회복지사되기 3
허준수 원장

코로나 팬데믹 시대 4
김경미 부원장

2020년을 돌아보며 5
이우식 원우회장(사회복지실천 4학기)

함께 했기에 갈 수 있었던 길 6
천경예 부회장(상담복지 4학기)

벌써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7
박영선(사회복지실천 4학기)

화양연화 8
윤다정(사회복지실천 3학기)

관계 9
한승희(사회복지실천 2학기)

배움의 열정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한다는 10
조래연(사회복지 3학기)

어머니(박영미作) 11
박영미(사회복지 1학기)

2020 해외현장연수(미국&베트남) 12
사진&소감문

2020 강화도 졸업여행 20

번개모임 24

힐링캠프 26

원우회 행사 이모저모 28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을 소개합니다 29

안내 30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생들에게



허준수 교수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2020년 초 발생한 Covid 19 팬데믹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일상들이 이제는 코로나 종식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뉴노멀사회로 갑자기 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같은 공간에서 직접 소통하던 강의와 모임들이 이제는 비대면 화상강의와 모임으로 변경되어서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져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수업이외에도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과의 모임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원은 교과목과 비교과 활동들을 뉴노멀시대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모든 활동들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U-Saint System을 구축하여 비대면 동영상강의, 학술토론, 출결관리 및 성적관리 등 모든 업무들을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비록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된 사회복지대학원 학술세미나인 “송실컬로키움”을 비대면 화상세미나로 4번을 개최하여 다양한 사회복지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면모임은 아니지만 우리 대학원의 다양한 학술동아리들도 코로나팬데믹 이전보다도 많은 모임들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단계를 철저히 준수하여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여 여러분의 교과목 활동, 비교과목 활동, 학술모임 및 동아리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대학원으로서 최대한 지지하고 후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하고 싶은 비교과목 활동이나 학술모임 등을 제안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열정이 반영된 결과 2020년 1학기와 2020년 2학기 입시결과 다른 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신입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대학원은 많은 지원자들이 신입생 모집에 응시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대학원에서는 송실 사회복지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고 여러분들께 최고의 사회복지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원 교수진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대학원 학생 여러분! 2021년에도 코로나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대학원의 강의, 비교과목 활동, 세미나 및 학술모임 등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대학원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복지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대학원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회복지대학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복지분야뿐만아니라 국제사회복지 분야를 이끌고 나갈 진정한 복지전문가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으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가 서로 얼굴을 직접 마주하면서 우리들의 만남과 모임을 지속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팬데믹 시대



김경미 교수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사회복지실천전공 주임교수)

안녕하세요?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김경미입니다.

서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유례없는 혼란과 새로운 시도의 한 해였습니다.

학교 역시 이런 팬데믹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척 고심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해 본 적이 없어 1학기에는 단지 수업을 진행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3월초 개학을 하고도 2주 동안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던 학교는 일단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이어 온라인 수업 전면 실시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저는 일단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중간고사 볼 때쯤에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사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기말까지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학교의 결정을 전달받고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1학기는 사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거의 없어 아쉬운 학기였습니다.

2학기에는 동영상 온라인 업로드와 줌 수업을 병행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기회도, 학생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자도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수님들은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3배 이상의 수업 준비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습자의 경우에는 옆에서 서로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 없이 자기 진도에 맞춰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특히 온라인 수업은 자기주도성을 토대로 삼기에 학생 각자의 태도와 열의에 따라 수업에서 학생들이 얻는 것이 서로 매우 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 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수업이든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학원생들인 만큼 더더욱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1, 2학기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한 적도, 동기들을 직접 대면해 만난 적도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학기는 동기들과 즐겁게 교정에서 수업 하는 날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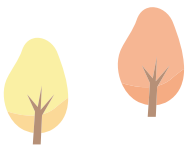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시대, 모두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이 우 식 제46대 원우회장
(사회복지실천 4학기)



안녕하세요!!!!

제 46대 원우회장 이우식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연말입니다.

바로 엊그제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마무리에 접어 들었습니다.

임기 초 “함께” 잘 해보자며 서로 논의하고 생각하였던 여러 계획들이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행하였던 여러 행사들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진 점은 위안이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시간을 함께 노력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항상 함께 해준 원우 임원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지해준 원우여러분께, 더불어 애정의 끈을 항상 가지고 계셨던 동문 선배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46대 원우회의 모토는 “함께하는 원우회”였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힘쓰고 애써주신 원우임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시작한 한 해였지만 오히려 더 끈끈한 인연이 되어, 서로 합심하여, 미래를 약속하고 서로의 성공을 응원해 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변할 수 없는 주어진 성씨, 태어난 고향은 각기 다르지만 배움의 정도와 척도라 할 수 있는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동문이라는 것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빛나고 고귀하고 알차고 높게 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인연하나가 금처럼 소중한 시대입니다,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이라는 그 인연의 끈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만물은 끝없이 유전하고 변화하여 오늘 연말에 다다랐습니다.

시시각각 찾아드는 계절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일상의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서도 한해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 원우여러분에게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했기에 갈 수 있었던 길



천 경 예 제46대 부회장
(상담복지 4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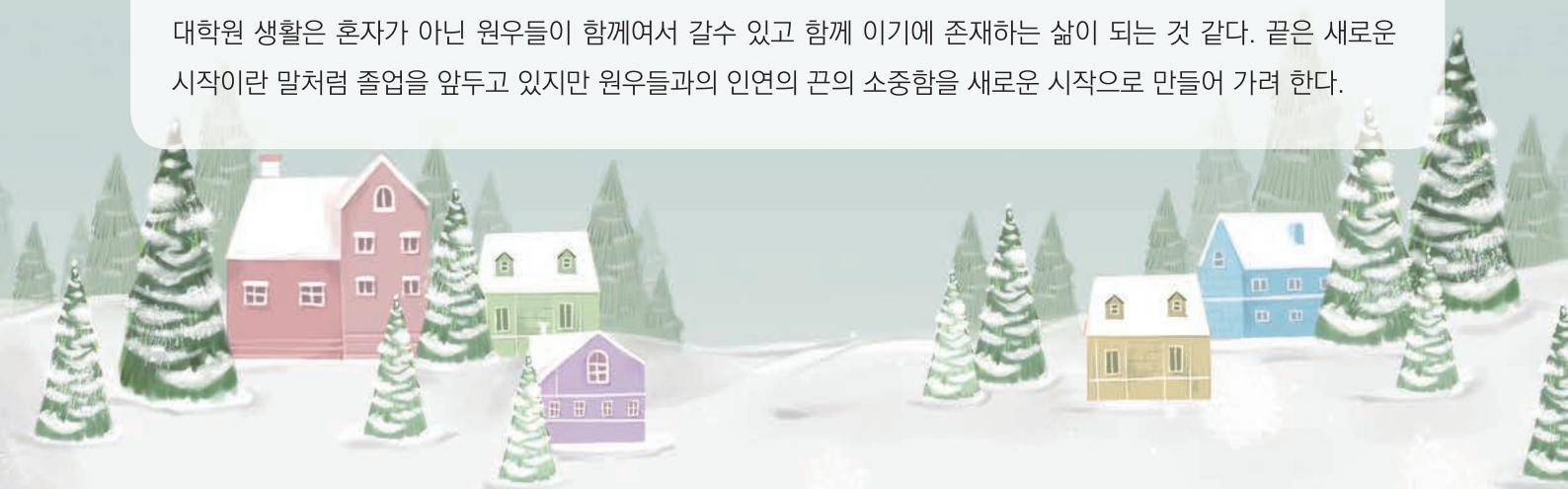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성큼 발밑으로 다가와 나를 올려다보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내리던 날 면접을 보았고, 매섭게 찬바람이 불던 날
입학식에 갔던 시간들이 지금은 추억이란 이름으로 내게 머물러 있다.

정신없이 보낸 1.2학기 속에서도 원우들과 과제를 함께 하고, 꽃잎 떨어지는 햇살 좋은 날
원우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캠퍼스를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추억도 만들었다.
그렇기에 46대 부회장에 선출되면서 2020년에 대한 장대한 포부와 원우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많은 추억을 쌓아가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푼 꿈을 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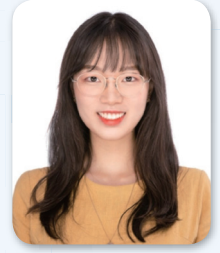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에게 평범했던 모든 일상들이 코로나로 인해 평범하지 않은 일상들로 바뀌게 되고, 가보지 않은 길 위
에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길에 성큼 걸어가야 하는 시간들이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2019년과
2020년의 차이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우면서도 가깝지 않은 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46대 원우임원들의 한분 한분의 힘을 모아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원우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기여해 주었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추억과 새로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만나지 못하는 목마름을 ZOOM을 통해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게 하고, 원우분들에게 따뜻한 커피쿠폰과 원우수
첩을 배달하며,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한해를 46대 원우임원들이 있었기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의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었다.
대학원 생활은 혼자가 아닌 원우들이 함께여서 갈 수 있고 함께 이기에 존재하는 삶이 되는 것 같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란 말처럼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원우들과의 인연의 끈의 소중함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가려 한다.



벌써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박영선
(사회복지실천 4학기)

안녕하세요, 4학기 기대표 박영선입니다.)

벌써 4학기 말이 되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자니, 면접을 보던 날이 떠오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지 않은 저이기에 굉장히 긴장했었고 위축되어 손이 떨리고 배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합격여부도 모르는데, 함께 면접을 봤던 선생님들의 대학원을 오게 된 계기, 목표 등을 들으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 꼭 합격해서 저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합격을 해서 정말 기뻐고 계절에 맞춰 예쁘게 변하는 학교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료생으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겠지만, 함께 공부하고 지냈던 선생님들과는 이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제에서 해방이구나!' 싶어 빨리 종강이 되길 바라지만, 이제 종강하면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함께 커집니다.

수업을 통해 교수님들께도 너무 많은 지식과 마음을 배웠지만, 저는 함께하는 선생님들께 배운 것도 참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타인을 생각하고 움직이며, 공부하려 할까요?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사람을 더 잘 돕기 위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선생님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들은 그 어떤 이론서보다 마음에 깊게 남아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자랑하고 싶었고 그래서 직장에 가서 많이 자랑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나 멋지다면서요!

한 수업의 교수님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매우 동의를 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선생님들께서 씩씩한 미소와 함께 아니라고 하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제가 본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다양한 능력을 지녔으며,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언제나 존재해 계셨거든요. 사람의 삶에 이렇게까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직업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는 '사람과 삶'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소한 저의 일을 응원해주시고 인정해주는 선생님들의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들을 지지대삼아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시겠지요.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처음 학교를 입학할 때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다가 졸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열정에 물들어서 이렇게 기대표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킨 것도 선생님들이십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며, 그렇게 변화해보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선생님들 덕분에 가지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니 어디서든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 날에 선생님들의 곁에 나란히 설 수 있는 멋진 송실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기대표를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 행복한 일이 하나씩은 존재하는 매일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선생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배움과 사랑이 가득한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오신 신입생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윤 다 정
(사회복지실천 3학기)

안녕하세요, 3학기 기대표 윤다정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송실대학교에 입학한지도 엇그제 같은데, 벌써 3학기가 되어 한 학기만 남겨두고 있는 어느덧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이 글을 쓰게 되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학교 4학년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명확하지않아 방황하던 중 내가 좋아하는 것과 오래 할 수 있는 것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여 사회복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었지만, 졸업 후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송실대학교에서 배운 가치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끊임없이 저를 서있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송실대학교에서 더욱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치를 배우기 위해 성장하고자 합니다. 나 혼자만의 발걸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송실대학교 원우들과 같이 가치있는 사회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싶습니다.

화양연화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송실대학교에서 함께 한 이 시간이길 바랍니다.

관 계



한승희
(사회복지실천 2학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며 보다 나은 역량을 키우고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이 많이 생겼으며, 어쩌면 당연하고 일상적인 행동들이 항상 긴장을 가지고 지내야하는 일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불어 대학원을 통해 많은 원우님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대가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는데 관계가 중요하지만 특히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이웃의 소중함은 그들로부터 멀어졌을 때 비로소 절감하게 된다.
완벽하게 격리된 인간에게는 재미 한 마리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동범-

“존재자체가 선물인 관계가 있다. 우리가 그렇다.”-로맨스는 별책부록-

비록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위의 말처럼 원우님들과 함께 맺었던 인연이 선물과 같은 관계가 되고 싶으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면으로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배움의 열정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한다는.....



조래연
(사회복지 3학기)

아동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며 부족함을 느껴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대학원이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독보적인 인재양성과 여러 분야에 활동하시는 교수님, 선배님들을 보면서 송실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가을학기에 입학하게 되어 지금은 사회복지 3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당시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교수님과 다양한 학우들을 만나고 나누는 기쁨과 설렘으로 차가 막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그리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고가 확장이 되고 깊어지는 그 강의실의 훈기가 아직도 생생한 듯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온라인 줌 강의를 통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서로를 대면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절절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가 됩니다.

저는 특별히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강의를 들으면서 사회복지현장과 사회구조, 조직 면에 더 넓은 이해와 체계를 알게 됨으로 제가 있는 현장에 대한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1학기만 남은 상태인데, 여러 이유로 원우회 활동을 더 깊이 적극적으로 못한 점이 원우회 임원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활동해 주신 임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움 앞에서는 절대 움츠려 들수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신 원우회 임원분들과 회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박영미
(사회복지 1학기)

그때 우리들은
밥상 위에 하얀 쌀밥과 잘 발라놓은
고등어 한 점씩 떼어먹고 있었어
남은 눈동자까지 서로 먹겠다고
양상한 가지 사이에서 다투고 있었지

옛 기억 속의 사무쳤던 비릿한 냄새

바람 소리가 들려
그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고요 속
어머니의 떨리는 음성

머리 위로 하나 둘 별들이 쏟아져
다라 내려놓으며 허리띠 풀어헤치면
와르르르 쏟아지는 그 동전들

무수히 비릿한 눈동자를 만들고 있었지
어느새 주름진 살갓이 물길기 되어버린 얼굴

오늘도 39년의 허리띠를 쓸쓸하게 즐라매고
하늘의 별빛은 비릿하게 빛나고 있었어.



해외연수 보고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2020.02.05.~12.

JOB READY

상담복지2학기 이수민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학부를 나오거나 사이버강의를 듣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

로를 통해 사회복지에 입문한 사람들 중 얼마나 근본이 있는 사회사업가로 현장에 나가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9-2학기 동계 해외연수를 통해 미국에 있는 SJSU(SAN JOSE STATE UNIVERSITY)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녀왔다. 거기서 인상 깊었던 점은 칼스웍(CalSWEC)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만든 비영리기관으로 사회복지학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곳이다. 칼스웍에서는 학교에서 배움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9가지 능력과 31가지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모든 교과서에 각 챕터 별로 어떤 역량과 행동을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칼스웍이 그 과목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각각의 챕터는 어떻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지,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9가지 능력과 31가지 행동지침을 통

해 안내하는 이유는 Self-care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나중에 현장에서 당사자를 위해 나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세우고 윤리강령을 잘 알고 지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스스로를 Tool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SJSU는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JOB READY"를 목표로 교육한다. 사실 나는 '일은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있었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은 성적에 맞춰 대학에 오고 전공과 상관없는 직장을 가서 일하면서 배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 역시도 '현장을 잘 모르니까, 현장은 또 다르니까, 지금 할 수 없더라도 그 곳에 가면 좀 달라지겠지, 그곳에서 배우는 무언가가 있으니 그 때가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수를 다녀오고 사회사업가야말로 현장에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SJSU 대학에서 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참가하거나 석사는 실습을 900시간 이상 하는 것, 학년에 맞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는 등의 교칙은 없더라도 내가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 기준을 잘 세워야 하는 것 같다. 나는 정말 당사자를 위하는 행복한 사회사업가가 되고 싶다. 더 이상 비전공자라는 말 뒤에 숨고 싶지 않다.





소중한 인연과 낯선 경험들

실천2학기 전명숙



2020년 연수에 신종코로나로 인해 갈팡질팡은 조금하였으나 항상 진행한 후에는 참 잘 했구나 라고 또 하나의 과제를 마친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다. 사전준비에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모두모두 수고와 서로에 대한 배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행은 가슴이 뻐 때 하여야 후회가 없는 것도 실감하였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3시간정도까지는 답답함이 느껴졌으나 적응력이 좋은 사람이라 금방 좋아졌고, 국적기의 안락함도 함께하였다. 첫째날의 몬트리올에서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용두암분위기 다람쥐와 기러기들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낭만이었다. 카멜시티에서는 상점과 전시장들 한국 작가의 작품에 반가움을 느끼고 여유가 느껴지는 정원과 길가가 인상적이었다. 둘째날 카이저기관 방문 오전에는 청소년기관에서의 견학에서의 놀라움은 샌프란시스코의 인구가 8만인데 어른을 5만이라고하면 그중 1/6이 동성애자라는 것도 의아했고, 3살 아이의 동성애인정 또한 문화의 차이 다름이 '미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거리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사는 이태원과 전혀 다름을 느끼지 못했다. 오후과정에서의 느낀점은 복지사들의 등급도 슈

퍼바이저들의 숫자와 수련 과정들도 우리나라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전문가로서의 과정도 대단했고, 클라이언트에게 대한 대처 방안도 본받고 싶었다, 노인담당을 맡고 계신 한국복지사 선생님도 만나 뵙고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점은 클라이언트의 숫자가 작으니 클라이언트의 이해가 충분함과 만족도도 크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셋째날 산호세대학의 한미경교수님의 강의를 첫째날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더 많은 부분을 알려 주시려는 교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왔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미국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하는 따라쟁이이지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도 지니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산호세대학은 도서관을 대학과 시에서 함께 운영하기에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하기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도서관이라는 말씀만 듣고 확인하고 점심도 함께 하자시는 말씀도 사양하고 다음 일정지로 향했다. 오후에는 스탠포드 대학 넓은 교정과 스탠포드 상점 견학하면서 교정은 우리가 따라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대학도 문구나 옷 등의 판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넷째날과 다섯째날에는 다채로운 관광일정중 금문교와 트윈픽스에서의 한컷이 인상깊었다. 여섯째날 정신건강센터 방문하여 한국인 한수경선생님의 슈퍼바이저인 릴라님의 센터소개와 대처방안등을 듣고 이기관의 강점은 2인1조로 의사의 소견없이 강제입

원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UC버클리대학을 견학하였다. 스탠포드는 여유가 느껴졌는데 이곳 버클리는 답답함이 느껴졌고 교정가득한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때마침 시계탑에서 일을 마치고 가는 한인학생을 만나 이것저것 물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복지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를 생각해 보았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존중하기에 거리에는 노숙자가 득시글 득시글 우리나라도 얼마전에 학원 앞에 노숙자가 있기에 112에 신고했더니 혐오감만으로는 연행이 불가능하고 다른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부탁만 할뿐이라고 했다. 점점 늘어나는 노숙자를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의역사속에 평민이 살기 힘들어 산속에 들어가 노력질을 하였더라는 것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은 왜일까? 모든 사건사고에는 이유가 있는데 과연 그들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박차고 왜 거리로 나섰을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화장실이 제일이었다.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널린 것이 화장실인데 말이다. 투덜이가 되어 버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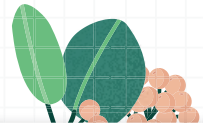
이번 연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성규교수님과 이채원교수님 감사합니다. 열일하시느라 힘드신 엄용수단장님 밤마다 새로운 여가 활동을 준비하신 여러 선생님들 늦깎이 학생 잘 끼워 주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해외연수 보고서

베트남 2020.01.15.~19.



다시 보게 된 베트남



박영준
(사회적기업 2학기)

베트남 사회적 기업 탐방은 나에게 있어 무척 궁금했던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 국가 그리고 소득이 낮은 동남아 국가라는 곳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있느냐 선입견을 가졌던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경제적 사회적 현상이라는 또 다른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날 Tohe에서 베트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첫 인상이 확 바뀌기에 충분한 경험을 하면서 베트남 사회적 기업 연수를 잘 왔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Tohe는 미술이라는 예술영역을 통해서 아이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곳인데 그곳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장애 아이들을 대하는 열리 마음과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잘 나타냄을 배울 수 있었다.

장애 아이들이 미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과 그들의 작품을 상품으로 연결하여 세계인들에게 장애 아이들의 사회 참여 의미를 전파하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Tohe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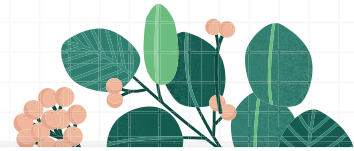
CSIE(Center for Social Innovation and Enterprise)와 CSIP(The Centre for Social Initiatives Promotion) 탐방에서도 정부단체와 민간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을 배울 수 있었다.

잘은 모르겠으나 베트남 체제와 관련한 그들만의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SIE에서는 담당자의 기관 설명을 들으면서 베트남에는 자선단체가 없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베트남과 같은 저소득국가에서는 자선단체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리라 생각했지만, 베트남 체제하에서는 자선단체가 종교적 성격이 이면에 있어서 체제를 부정할 수 있는 아마도 적대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그들만의 나름의 국가 운영 철학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번 연수를 통해서 베트남을 이해하는 한 가지 좋은 사례라 생각되었다.

재미있었던 곳은 KOTO(Know One Teach One)라는 곳이었다. KOTO는 식당으로 우리 연수단이 저녁을 먹으러 들렀던 곳인데 입구부터 프랑스풍의 건물 안에는 외국인들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흥겨운 저녁 시간을 보내는 딱 분위기 좋은 식사 장소였다. 어느 기사에서는 KOTO는 호주에서 성장한 호주 국적의 '라이파이한' 문용철이란 분이 1996년 가이드로 우연히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서 해매는 청소년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재산을 털어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청소년 교육센터인 KOTO를 설립했다고 한다. 불우 청소년들의 자활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자립해 삶을 변혁하는 데 이바지해온 KOTO는 베트남의 첫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베트남의 청년들을 보면서 베트남의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감히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베트남 사회적 기업 연수는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의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면서 점차 베트남 하노이의 사회적 기업 현황과 활동상을 보면서 기존의 생각들이 편향된 생각 또는 선입견이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그래서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한정된 시간과 기간 안에서 알차게 보내면서 조금 이나마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류의 기본적인 생각은 체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생각은 같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청년이나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어린 시적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가진 조직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아마도 현대의 자본주의 폐해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체제이든 꼭 필요한 현상이지 않을 수 없다.



천천히 나아가는 세상



남상문
(사회적기업 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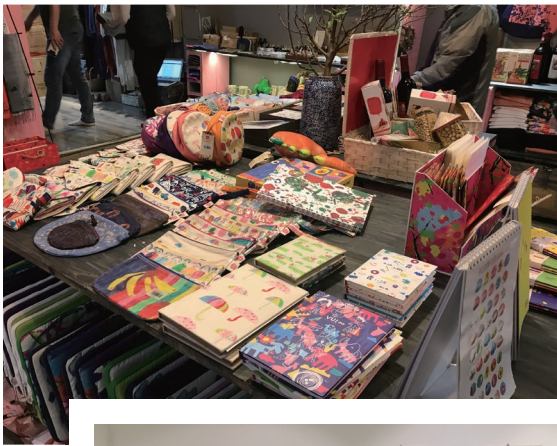
가을학기에 입학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던 저에게 해외연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베트남의 사회적기업이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사회적기업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놀라움과 흥미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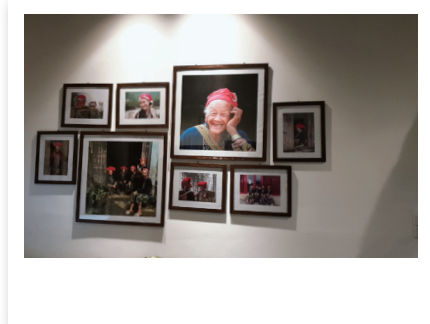
베트남의 사회적기업은 국가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의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분명히 기대해 볼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CSIE와 CSIP를 방문했을 때는 베트남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방향을 정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사회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질문을 했을 때 어려웠겠지만, 질문 의도에 맞춰서 친절하게 답변해줘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베트남의 사회적기업은 TOHE이었습니다. TOHE는 베트남의 장애 아동과 교육 소외 아이들에게 놀이와 예술교육 등 창조적인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학습 놀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애 아동의 예술교육은 물론 장애 아동의 그림을 패턴화, 디자인화 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장애 아동들에게 배분되며, 일부는 TOHE의 교육 프로그램에 재사용 되고 있었습니다. TOHE에서 직접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리면서 장애를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본 것이 크게 와 닿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선입견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와 비교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면서 느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더욱 깊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서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힘써주신 교수님과 함께 연수를 가서 고생하신 원우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만남에 그리움이 가득찬 강화도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박 영 선 사회복지실천 4학기

이런 큰 행사를 도맡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려운 것도 많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졸업여행을 다녀온 후 코로나가 급격히 심해져서 시기 적절하게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졸업여행이 아니면 이렇게 오랜 시간 선생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가장 강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졸업여행 참여에 고민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저는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친한 사람이 없어도 가면 모두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니 꼭꼭 졸업여행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유 아 정 사회복지실천4학기

졸업여행을 가는 것에 조금 망설였지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급증와 과제 시험으로 마스크 단단히 동여매고 설렘 반, 두렵 반으로 떠났지만 거의 1년만에 본 원우님들과의 수다 즐거운 웃음 그동안의 이야기.. 모든것이 뜻깊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김 선 희 상담복지4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마무리 뿔뿔한 나의 마지막 학기를 졸업여행으로 추억에 남기게 되어서 무지 기뻐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지침으로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새롭게 알게된 쌤들과 보고싶었던 쌤들과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함께 밤을 지새우며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과 선생님들과의 추억은 잊지 못할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여행으로 기억될것 같습니다.

어려움에도 이런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로 전합니다~

이 은 영 사회복지실천4학기

만남에 대한 그리움과 코로나라는 상황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간 강화도에서의 소중한 일정이 힘든 기말고사 기간과 바쁜 연말을 지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것이 감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명 숙 사회복지실천4학기

저번학기에도 추진 못했던 졸업여행 강행하여 처음에는 35명 남짓되는 선생님들의 신청으로 진행하였으나, 우리대학의 특수성으로 근무지 이탈이 어려워 13명으로 50인 숙소를 넉넉히 누렸습니다. 푸짐한 저녁과 처음뵈는 선생님과의 같은 계열의 공부를하기에 숙내를 들어낼 수 있어 눈빛의 교류만으로도 서로를 알수 있음에 정말 잘 시작했구나 또 느끼며 후회없는 대학원 생활 마무리 잘하였답니다. 감사합니다.

천 경 예 상담복지4학기

우리에게 졸업여행은 단순한 친목이 아닌 원우들과의 목마름 이었습니다. 모두 얼굴 마주하고 한없이 이야기 꽃을 피우는 모습들에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채우기라도 하듯 끊이질 않는 웃음들을 보며 정말 잘 왔고 이렇게 우리가슴에 추억이란 선물을 담아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시간을 함께했기에 더 애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손미란 사회복지실천4학기

2년이라는 시간이 어찌면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학우들과 소통과 교류할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이 정신 없이 지나가 버려 아쉬움 한가득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의 염려로 인하여 지원도 못 받는 졸업여행이었지만 그 간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추억 한 컷을 만들 수 있어서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날로 마음에 새겨 봅니다. ^^

권남정 졸업생

-학기를 뛰어 넘는 우정 다지기-

코로나로 예상치 못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원우들을 직접 만날 기회조차 없이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학기 동기들과의 추억을 위한 졸업여행 조차 코로나에 발목이 잡혀 호전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후배 원우들과 함께한 졸업여행이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식구의 정을 느끼고, 학교 생활의 추억을 곱씹으며 더할 나위 없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서로의 표정에서 묻어나는 행복을 함께 나누는 2020년 졸업여행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졸업여행 동기 여러분!! 우리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이 화 실 졸업생

20년 8월 졸업생입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나타나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수업을 마지막 학기를 보내서 아쉬웠습니다. 졸업식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8월 마지막으로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다보니 14일이었으면 졸업식 행사를 했을 터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졸업식도 하지 못하고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다행하게 이번 학기생들과 졸업식을 갈수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또한 코로나가 우리의 여행을 방해하여서 결국은 뜻이 맞는 학우들끼리 소소하게 1박2일로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1박 2일동안 동심으로 돌아가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여유있게 대화도 나누는 시간을 갖았던 것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좋은일 가득하시고 연말연시 잘 보내세요!



김 명 은 졸업생

언제 끝날까 싶었던 대학원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저 후련하기만 할 것 같았던 졸업에 대한 소감은 뜻밖에도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이 감정들의 원천은 아무래도 졸업여행 덕분인 듯합니다. 1박 2일 동안 나눈 대화가 2년간의 대학원 생활 전부를 통틀어 나눈 그 어떤 대화보다 밀도 있고 친밀했으니까요. 왜 진작 이러한 교류를 나누지 못했을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가 좋으면 다 좋다고 했던가요... 코로나19로 마지막 학기 수업과 학위수여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었는데, 졸업여행 덕분에 그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졸업여행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난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대학원에 와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지식이 아닌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2020학년도 1학기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번개모임

2020년 6월 20일

이수민 제46대 문화부장
(상담복지 4학기)



2020학년도 1학기 원우회의 등반대회 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던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에 어떻게든 우리 원우들의 소통을 놓칠 수 없기에 번개모임을 진행한 원우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에도 굴하지 않고 번개를 열었던 이우식 회장님, 문화부원들(이수민, 박다영, 고귀수) 그리고 어떤 예산도 없다는 말에 프라이팬 기념품을 후원해주신 졸업생 엄용수 선생님과 연결해 주신 전명숙 재무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면접 이후 학교에는 한 번도 오지 못한 신입생 선생님들과 이번 학기 내내 학교에 오지 못했던 2,3,4학기 선생님들을 위해 번개 장소는 학교로 정했습니다.^^

항상 늦은 저녁에만 학교에 방문했는데 밝은 아침의 학교 분위기는 어떤가요?





가장 먼저 자기소개하기~ 처음 만난 선생님들,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ㅎㅎ



졸업생 엄용수 선생님이 지원해주신 프라이팬입니다!
집에 갈 때 다들 하나씩 가져가셨는데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우들과의 소통을 위해 힘써주신 46대 원우회와 함께 참여해주심으로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주셨던 모든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함께라면! 2020년 2학기 힐링캠프



국가재난사태가 장기국면됨에 따라 언택트시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올 한해, 집에서도 건강하고 즐겁게 '함께'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원장님을 필두로 진행한 가위바위보와 골든벨 게임은 신입학한 원우들과 교수님, 원장님이 만나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한 눈에 모든 화면들을 볼 수 있기에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등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비대면 시스템도 막상 갈피를 잡으니 장점이 많았습니다.

각 전공별 소모임을 마련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간단 스트레칭을 배우기도 하고 신입학 후 만나지 못했던 원우들과 비대면으로나마 얼굴 마주하며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원장님이 소모임실에 돌아가며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 나누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메인 이벤트였던 원예프로그램은 '힐링캠프'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꾸려졌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며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화분을 보며 박수쳐주기도 하였고, 완성된 후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느꼈던 점과 나를 위한 다짐을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모두가 하나되어 원우회를 위한 마음으로 나눔 참여해주었기에 더욱 뜻 깊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출 혹은 모임 참여를 지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삶에 지친 마음을 달랠 자연을 접하는 것조차 힘든 시기에 잠시나마 작은 화분을 통해 일상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경험의 시간이 되었기 바라며,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우들의 후기]



권남정 (상담복지전공)

연택트로도 충분히 가능한 학교행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진정 힐링이 물어나는 행사인듯요~~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박소영 (상담복지전공)

오전엔 수업이라 참여가 어려웠지만, 오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어요!

신혼집 인테리어 효과로 딱입니다~

이서정 (사회복지전공)

유호선선생님의 진행과 원우회 선생님들덕분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연택트로 진행된 힐링캠프였지만 충분히 연결감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최정윤 (상담복지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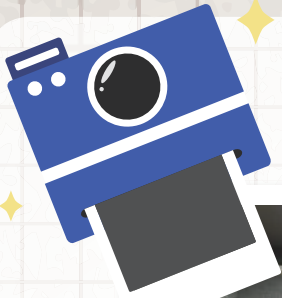
정말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따뜻한 추억 하나, 함께 공유 될 소중한 이야기,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원우회 행사

이 • 모 • 저 • 모



▶ 2020년 8월 10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20년 9월 4차 지식공유네트워크 / 송실대 사회복지대 46호기(4)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신건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서비스 현황은?

12월

일시 2020년 12월 18일(금) 저녁 7시~8시30분

장소 비대면 ZOOM 프로그램
(일련번호: 사회복지대학원 및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에 공지)

강사 안성희 강사님
-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2020)

주최 • 사회복지연구원
•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46대 원우회

문의 사회복지연구소 민영 무호교 010-9379-7303
사회복지대학원 학습지원문선우 010-3885-9881

Online SNS Talk

▶ 지식공유네트워크(온라인 줌화상회의 대체) ◀

스승의 날

POST

▶ 코로나19로 인해 배송 및 개인별 교수님께 전달 ◀

원우수첩 & 간식 집앞까지 배달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원우수첩과 간식 배달 ◀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신우회

개강예배

OPENING WORSHIP

2020. 9. 8_TUE 21:30

ONLINE_ZOOM

문의 : 이창환 010-2387-6468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개강감사예배 ◀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을 소개합니다.

웨스트민스터홀 435호에 위치한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

교학팀에서는 원우들의 학교생활 제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휴·복학, 학점체크, 졸업시험 등 각종 사항에 대해 교학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지면에서는 원우님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도와줄 몇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사회복지대학원 홈페이지 확인

사회복지대학원의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각종 공지는 시행 10일 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신다면 학교에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험등의 최신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경우, 교학팀에서 원우회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도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니 원우회 SNS를 확인해주셔도 됩니다.

2. 학사력 확인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홈페이지 내 SSU 학사일정에 한 학기 동안 진행될 행사 및 시험 등의 각종 정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학사력을 확인하시고 졸업시험 등의 중요한 날짜는 꼭 기록해주세요!

3. 교학팀 운영시간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학팀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업무를 일찍 마치고 6시 이전에 교학팀을 찾으신 분들은 종종 헛걸음 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교학팀의 저녁식사 시간은 저녁 5시부터 6시 사이로, 이 시간에는 교학팀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 13시 30분~17시, 18~22시, 토요일에는 10시~14시에 교학팀이 운영되고 있사오니 운영시간에 맞추어 교학팀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교학팀에 찾아가기 어려워 **전화(02-820-0277~8)**를 주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전화 또한 평일 오후 1시 30분이후부터 응대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게 교학팀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메일 (bokji@ssu.ac.kr)**이라고 합니다. **bokji@ssu.ac.kr** 로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면 교학팀 조교님들의 빠른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송실대슈팅(SSU Ting) 설치

학교생활과 관련한 공지사항은 문자메세지가 아닌 송실대슈팅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구글 Play스토어 / App스토어 '송실대슈팅' 검색 하시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 동아리안내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은 원우들의 전공분야별 학문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복지 실천역량을 강화하며, 재학생과 동문의 응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6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점관점해결중심실천연구회 #사회복지실천 #상담 지도교수_노혜련	송지회 #노인복지 지도교수_허준수
사회적기업연구회 #사회적기업 지도교수_오단이	학교사회복지연구회 #학교사회복지 지도교수_전구훈
아동청소년복지연구회 #아동 #청소년 지도교수_유서구	정신건강사회복지연구회 #정신건강 지도교수_이성규

📅 신우회 안내

평안과 위로, 회복이 있는 사회복지대학원 신우회 예배가 학기 중 매주 화요일 밤 9시 40분부터 10시 30분 까지 진행됩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우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 공동체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을 모임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일시 : 매주 화요일 PM 9:40 ~10:30

-장소 : 웨스트민스터홀 432호

* 당분간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 각종 SNS안내 "우리 소통해요!"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ssunsw>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oongsil_gsosw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oongsilgsosw>

네이버밴드 : 전공별 단체카톡방에 밴드 가입초대장을 공유해드립니다. 꼭 가입해주세요!

사회복지대학원 제35호

발행일 2020. 12. 23

발행인 허준수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06978)

발행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편집인 이시우

연락처 02-820-0277~8

디자인 (주)두루행복한세상(1644-0728)

이메일 bokji@ssu.ac.kr